

# 광주대 여자농구 U-리그 '값진 준우승'

## 1·2학년 선수로 주전 꾸려 결승까지 진출 파란 일으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여자농구부가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 대학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1, 2학년 선수들로 주전을 꾸려 이번 대회 결승까지 진출해 주목받았다.

광주대는 지난 6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건국체육관에서 열린 단국대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67-79로 패배했다.

2쿼터까지 25-35로 고전하던 광주대는 3쿼터에서 득점포가 터지면서 34-37, 3점차까지 점수를 좁혔다.

이어 54-45로 뒤진 4쿼터에서 뒷심을 발휘해 5점차까지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챔피언에 등극한 광주대는 다음 대회 우승을 기약하게 됐다. 1, 2학년 선수들의 기량이 우승을 넘보는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광주대는 이들의 성장을 확인한 게 이번 대회의 또다른 수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광주대는 결승전에서 5득점 3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한 전세은(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저학년 선수로 경기를 치렀다.

양지원(2년)이 28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으며, 유아비(1년)는 15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4스틸 2블록으로 선전했다.

박재별(2년)이 10득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김원지(2년)가 7득점, 11리바운드, 2스틸 등 주축 선수들이 고루 활약했다. 양지원(2년)은 득점·수비상 2관왕을 달성했으며, 유아비(1년)는 어시스트상을 받았다.

국선경 광주대 감독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장님과 운동부 부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준우승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광주대라고 하면 여대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 대학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대학교 선수들. <광주대 제공>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 대학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대학교 선수들. <광주대 제공>

# 여자배구 페퍼, 전체 1순위로 센터 박사랑 지명

박은서·서채원·김세인·문슬기 등 미래 짝어질 젊은 피 수혈

광주체고 출신 이은지도 뽑아

여자프로배구 제7구단 광주 페퍼저축은행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피가 수혈됐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7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1-2022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대구 여고 센터 박사랑(18)을 지명했다.

대구일증을 거쳐 대구여고에 재학 중인 박사랑은 키 175cm, 몸무게 69kg의 센터로,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다.

대구여고에서 전체 1순위 지명자가 나온 것은 박사랑이 처음이다.

아울러 센터가 전체 1순위에 선정된 건 2006-2007시즌 한수지(인삼공사), 2008-2009시즌 엄혜선(현대건설), 2020-2021시즌 김지원(GS칼텍스)에 이어 두 시즌 연속이자 역대 네 번째다.

박사랑은 "페퍼저축은행에서 믿고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믿어주시 만큼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참여하는 신생구단 페퍼저축은행은 우선 지명권 6장을 받았다. 이 중 4순위 지명권은 자유계약선수(FA) 하계 진출을 영입하며 원소속구단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시즌 연봉 200%인 2억원과 함께 넘겼다.

페퍼저축은행은 박사랑 이후 일신여상 레프트 박은서(2순위), 대구여고 센터 서채원(3순위), 선명여고 레프트 김세인(5순위), 수원시정 리베라 문슬기(6순위)를 차례로 뽑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연고지 출신인 광주체고 이은지를 수련선수로 뽑았다.

이은지는 치평초 광주체육중을 졸업한 공격수 자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역 선수 육성을 위해 연고지 선수를 지명해달라는 광주시 배구협회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은지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현대건설은 목포 여상 레프트 이현지를 지명했고, 2순위 도로공사는 수원시정 센터 이운정을 호명했다.



박사랑

# KB금융 스타챔피언십 9일 개막 박인비·김효주·박민지 등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이 9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6689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인비(33)와 김효주(26), 전인지(27) 등이 출전해 박민지(23), 장하나(29), 박현경(21), 최혜진(22) 등 '국내파' 선수들과 벌이게 될 자존심 대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박인비는 KLPGA 투어 대회에 27차례 나와 2018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한 차례 우승했다. 아직 국내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에서는 우승이 없어 이번에 정상상을 노린다.

역시 올림픽 대표였던 김효주는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도쿄올림픽 이후 이번이 첫 대회 출전이다.

KB금융그룹 후원 선수인 전인지는 7월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공동 6위의 상승세를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갈 태세다.

이에 맞서는 '국내파' 들은 시즌 6승의 박민지를 필두로 평균 타수 1위 장하나, 상금 2위 박현경 등이 메이저 정상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즌 상금 1위 박민지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 2억1600만원을 받게 되면 시즌 상금 14억 9000만원을 넘긴다. 역대 K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2016년 박성현(28)의 13억 3309만원이다.

# 유럽, 미국 꺾고 2년 연속 우승 여자골프 대항전 솔하임컵

미국과 유럽의 여자 골프 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유럽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유럽은 7일(한국시간) 미국 오키호주 탈리도의 인버네스 클럽(파72)에서 열린 제17회 솔하임컵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5승 2무 5패를 기록했다.

앞선 이틀간 이어진 포섬과 포블 매치에서 9-7로 앞섰던 유럽은 싱글 매치플레이 결과를 포함해 최종 스코어 15-13으로 승리했다.

1990년 창설돼 격년제로 열리는 솔하임컵은 미국과 유럽에서 12명씩 선수가 출전해 겨루는 단체전으로, 유럽은 2019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제16회 대회에 이어 정상에 올라 역대 전적 7승 10패를 만들었다.

유럽은 첫 날 포섬 경기에서 3승 1무로 압도한 뒤 둘째 날까지 우위를 이어갔고, 2019년(14.5-13.5)보다 더 나은 점수로 우승을 일궈냈다.

솔하임컵에 데뷔한 리오나 머과이어(아일랜드)가 이날 제니퍼 켈츠와의 싱글 매치에서 5홀 차로 승리한 것을 비롯해 4승 1무를 올리며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남겼다.

마찬가지로 솔하임컵에 처음 출전한 마틸다 카스트렌(핀란드)도 리넷 살라스와의 싱글 매치에서 18번 홀(파4) 파프트를 넣고 한 홀 차로 이기며 유럽의 우승을 확정지은 것을 포함해 3승 1패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미국은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 5명이 포진한 더 나은 전력에 흠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패했다.

켈츠와 살라스가 2승 1무 1패씩 올린 게 미국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은 성적이었다.

넬리 코다는 이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조지아 홀(잉글랜드)을 한 홀 차로 따돌리며 2승 2패로 대회를 마쳤다.

단장 추천을 통해 처음으로 솔하임컵에 나선 교포 선수 노예림은 싱글 매치에서 벨 리드(잉글랜드)를 한 홀 차로 꺾어 전날 포블에서의 1승을 포함해 2승 1패를 기록했다.

세 번째 솔하임컵에 출전한 대니얼 강은 마지막 싱글 매치에서 에밀리 페데르센(덴마크)에게 한 홀 차로 지는 등 이번 대회 1승 3패에 그쳤다.

# 더 세진 '10대 돌풍' 라두카누 8강행

US오픈테니스 조코비치도 8강

19세의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예선 통과 선수로는 통산 세 번째로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750만 달러·약 674억원) 여자 단식 8강에 진출했다.

라두카누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셸비 로저스(43위·미국)를 2-0(6-2 6-1)으로 완파했다.

이번 대회 예선부터 시작한 라두카누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세 번째로 US오픈 여자 단식 8강에 오른 예선 통과 선수가 됐다.

이전에는 1981년 바버라 게르켄(미국), 2017년 카이아 카네프(에스토니아)가 예선을 거쳐 이 대회 여자 단식 8강까지 진출했다.

라두카누는 8강에서 올해 도쿄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벨린다 벤치치(12위·스위스)를 만나게 됐다. 2002년생 라두카누는 7월 Wimbledon 당시 세계 랭킹 300위 대였으나 역대 영국 선수 최연소로 Wimbledon 여자 단식 16강에 진출하는 이번을 일으킨 선수다.

당시에는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본선에 직행해

예선을 거치지 않았다.

이번 대회 예선부터 시작했으나 오히려 웅변던 보다 한 계단 높은 8강까지 진출하며 '일회성 돌풍'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라두카누는 3회전에서는 사라 소리베스 토르모(41위·스페인)를 역시 2-0(6-0 6-1)으로 완파하는 등 이번 대회 예선부터 7경기를 치르면서 상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올해 US오픈 여자 단식 8강에는 '10대 선수'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역시 2002년생인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가 8강에 선전했고, 라두카누가 이날 합류했다.

이번 대회는 남자 단식에서도 2003년생 카를로스 알카라스(55위·스페인)가 전날 8강에 오르는 등 '10대 돌풍'이 거세다.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는 쟌스 브룩스비(99위·미국)에게 3-1로 역전승, 8강에 안착했다. 이번 대회 남자 단식 8강은 조코비치-마테오 베레타니(8위·이탈리아), 알렉산더 츠베레프(4위·독일)-로이드 해리스(46위·남아공),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15위·캐나다)-알카라스,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보틱 판더잔츨프(117위·네덜란드)의 대결로 열리게 됐다.



7일 뉴욕에서 열린 2021 US오픈 테니스대회 16강전에서 영국의 에마 라두카누가 미국의 셸비 로저스를 상대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싱크홀
2관	인질, 귀문
3관	인질, 싱크홀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5관	모가다슈
6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9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코다 칸파우더 일크세이크
7관	씨네커플 모가다슈, 싱크홀, 귀문
8관	씨네커플 인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11시 음악산책 6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일시 : 2021. 09. 24.(금)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